

요즘 시어머님들은 이런 거짓말을 많이 하신답니다. "내가 얼른 죽어야지!" 말은 그렇게들 하시지만 정말 두려운 것이 죽음입니다. 일생일대의 가장 큰 과제요, 정녕 견디기 힘든 고통이기에, 또한 가장 큰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기에 사람들은 기를 쓰고 죽음을 피해 다닙니다.

그러나 죽음처럼 공평한 것이 또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부자건 거지건, 최고 권력자건 서민이건 대상을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피하고 싶더라도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손님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우리는 ‘그 죽음이 적어도 내게는 아직 멀었으려니, 내게는 해당되지 않으려니’하며,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위령성월에 걸맞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날과 그 시간’에 펼쳐질 광경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시는 한편, 그 날과 그 시간은 언제 올지 모르니 항상 깨어 준비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죽음을 앞둔면 하나같이 남기고 싶은 말이 ‘살아있음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겨라, 하루하루를 꽃밭으로 장식하라, 매일 매일을 충만한 기쁨으로 엮어가라’이고,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삶을 그렇게 심각하게 살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천국을 향한 순례자들이며, 잠시 지나가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끽하기 위해 여기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십시오.” “삶에서 가장 큰 상실은 죽음이 아닙니다. 가장 큰 상실은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우리 안에서 어떤 것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것, 그것을 지금 하십시오.”

[죽은 시인의 사회]이란 영화에서 주인공은 학생들의 귀에 이렇게 말합니다. “까르페 디엠(Carpe Diem), 이 순간 최선을 다하라, 인생을 낭다르게 살아라.” (* Carpe Diem은 라틴어로 "seize the day"의 뜻인 "현재를 즐겨라", “이 순간 최선을 다하라”의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죽음과 동시에 선사되는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죽지 않고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잘 죽는 법을 배워야 하며, 잘 죽는 것은 곧 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전 열 신부

보편지향기도

조학균 신부(예수회, 전례학박사)

미사가 하느님과 그리스도인들간 대화의 장이라면, 기도는 대화 그 자체이다. 미사 중 기도 내용은 하느님에게 간청하면서 모든 이들을 위한 보편적 선을 지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적으로 미사 전례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전례 봉사자들이 회중을 대신해 바치는 기도
에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라는 말로 참여하고 있으며, 자유로운 보편지향기도를 통해 직접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다. 보편지향기도는 모든 이들의 지향을 모아 특별한 기도 형식을 갖지 않고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말로써 미사전례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느님께 청하는 것이다.

하느님과 순수한 대화를 통해, 그리고 강론을 통해 알게 된 하느님 뜻에 응답하기 위해 성령의 도움으로 하느님께 은총을 청하는 것이다. 보편지향기도를 바치는 기도자들은 독서자들과 같이 경건한 마음과 공동체를 대신한다는 마음으로, 차분하고 분명한 발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미사전례 안에서 기도가 준비돼 있지 않다면 준비된 식탁에 음식이 없는 것과 같다. 그리스도인들이 보편지향기도라고 부르는 기도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느님 말씀에 대답하기 위한 기도이며, 신앙에 따라 사는 데 필요한 은혜를 청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으며,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 기도로 응답"(전례헌장 33항)함으로써 공동체가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다.

보편지향기도의 특징은 개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청하는 것이 아니다. 공동체적이고 공동체를 위하고 공동체에 의존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하느님 은총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있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인 것이다. 말씀 전례를 종결하고 성찬 전례를 이어주는 보편지향기도는 인류 구원을 위한 예비 봉헌이며, 인류 구원을 위해 자신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공동체의 이름으로 결합되어 한 공동체를 형성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보편지향기도는 지향을 두지만 기도를 바치는 표현 방식이 자유롭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즉 보편지향기도는 4가지 지향을 갖는데, △모든 교회를 위한 기도 △전 인류를 위한 기도 △모든 차원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 등으로 구성된다. 미사전례에 있어서 신자들은 주어진 일정한 양식에 의해 준비된 교회 기도문에 충실하게 공동체와 함께 표현을 하지만, 보편지향기도를 통해 공동체의 기도 속에서 자신의 기도를 자유로이 바칠 수 있다.

보편지향기도는 신학적 의미를 풍부히 담고 있는 형식화한 교회 기도문이 아니다. 자신의 신앙과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향하고 청해야 할 것을 학문적이거나 문학적 표현이 아닌 생활의 언어로 정리해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함으로써 공동체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기도다.

위령 성월 기도

☞◎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 아멘.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주님, 제 소리를 들어주소서.

● 제가 비는 소리를 귀여겨들으소서.

☞ 주님께서 죄악을 해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 오히려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사와 더 더욱 당신을 섬기라 하시나이다.

☞ 제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오며 당신의 말씀을 기다리나이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제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 주님께는 자비가 있사옵고

풍요로운 구속이 있음이오니

☞ 당신께서는 그 모든 죄악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리이다.

☞ 기도합시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바라던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 아멘.

본당발전을 위한 기도

○ 사랑이신 주님, 저희가 주보성인인 성 정하상 바오로의 모범을 본받아 열심히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 주님께 받은 모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님의 보살핌 속에 하나되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의 계명을 가정과 이웃, 지역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 말과 행동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앞장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 본당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주님의 기쁨소식을 널리 전하게 하소서.

◎ 주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하느님께서는 스스로 완전하다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늘 부족한 자를 선택한다!’

본 당 소 식

◎ 11월 구역모임 안내

- ▷캠브리지구역 : 21일 (토) 6시 김흥식형제대
- ▷브랜포드구역 : 27일 (금) 7시 안정흥형제대
- ▷키치너 구역 : 21일 (토) 7시 교육관
- ▷워털루 2구역 : 21일 (토) 6시 김영정자매대
- ▷워털루 3구역 : 20일 (금) 6:30 박영진형제대

**** 교우주소록양식 정정/추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월 음악회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관리부에서 알려드립니다.

교육관/소성당 사용시 반드시 본당 주차장을 사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태양초 고춧가루 및 멸치 판매 안내

런던 성당 바자회에서 여분이 남아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필요한신 교우는 오늘 친교 식사 중에 구입하세요

◎ 본당 홈페이지 오픈

주소 : www.kwpaul.com

▷ 홈페이지에 대해 개선할 사항은 한택중 형제께 말씀해 주십시오. ☎519 279 4005 교환 1번

◎ 11월 안내 담당은 청소년부입니다.

▷ 12월 : 사목회의

◎ 교육관/사제관 관리 일정

▶워털루 4구역 11월

토너스 주교님과의 면담

지난 10일 해밀턴주교청에서 가진 교구장 토너스 주교님과의 면담내용을 간략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인천교구장님께 보낸 ‘김선호 신부님의

인사’ 조치에 관한 토너스 주교님의 서한에 대해 답신이 왔습니다. 그 내용은 인사 조치에 따른 인천교구 측의 사과와 말과 더불어 원한다면 사제파견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토너스 주교님께서는 인천교구가 더 이상 저희 공동체에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에, 지난 달 면담에서 언급된 바 있는 원주교구 사제파견 건을 서둘러 추진하라고 당부하셨고, 이를 위해 토너스 주교님께서는 급히 원주교구장님 앞으로 공식서한을 보낼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K-W 한인천주교회의 역사를 알리고, 해외 이주사목에 따른 원주교구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김선호 신부님의 인사’ 조치에 관한 명확한 사유를 밝히어 사제파견 의지와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원주교구 측의 사제파견 제의를 흔쾌히 수락한다는 내용입니다. **결론으로, 현재로서는 이 길만이 본당 주임사제가 시급한 저희 공동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기**에 이를 위한 모든 제반사항에 적극 협조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토너스 주교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대한 깊은 사랑의 메시지이며 우리 신자들에 대한 격려와 기대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보답하는 의미에서라도 찬바람에 웃기를 여미듯 잠시 흐트러졌던 마음을 추스르고 다잡아야 할 것입니다.** 모름지기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꽃이 좋고 열매도 많다고 했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갑니다. 추수의 계절이라는 데... .

과연 저희가 그동안 기도로서 가꾸어 온 우리 신앙공동체의 나무는 무엇을 열매 맺고 거두어 들었는지 곰곰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사목회장 장명길 바오로

2009년 11월8 일 봉헌금 내역
주일헌금 : \$ 580.00
교 무 금 : \$ 100.00 258(100)
감 사 금 : \$ 50.00 183(50)
성전건립 : \$
성모님동산 (누계):\$105 (\$5060.00)
합 계 : \$ 730.00



KW한인천주교회 St. Paul Chung Parish

516 Franklin St. N., Kitchener
Ontario. Canada. N2A 1Z4

☎ 519 208 1913
FAX 519 954 1913

www.kwpaul.com

주임신부

사목회장 장명길 바오로 ☎ 519 758 9526

2009년도 사목지침

“말씀과 성체 안에서 본당 토대 다지기”

실천사항

1. 성서 쓰기, 읽기
2. 평일미사 참례하기
3. 주요기도문 다시 외우기

주일 미사

평일 미사

유아 세례

병자 성사

혼인 성사

예비자교리

고해성사

축복식(차량,주택,가게) 1주일 전 신청

주일 오후 5시

수 오전 10시

금 오후 8시

1주일 전 신청

상시

10개월 전 신청

10개월, 통신교리는 1개월 보충

미사 전 20분

2009-46호

2009. 11. 15.

연중 제 33 주일

(평신도 주일)

해설 최우석

차주 해설 김근효

성 가

입 당 (337) 미사시작

봉 헌 (212) 너그러운 받으소서

성 체 (163) 생명의 양식

퇴 장 (463) 순례자의 노래

화 답 송 ◎ 주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너희는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
여라. ◎ 알렐루야

영성체송 저는 하느님 곁에 있어 행복
하옵니다. 주 하느님을 피신처로
삼으리이다.

독 서

11월 15일 노재현 노정은

11월 22일 고영호 고기숙

봉 헌

11월 15일 이동기 이정숙

11월 22일 노재현 노정은

복 사

11월 15일 류지현 김건우

11월 22일 안아림 노승범

친 교

11월 15일 성모회와 워털루 2구역 협조

11월 22일 성모회와 워털루 3구역 협조